

# 시황 & ETF 한눈에보는상상인지스투자전략

## 방산-우주항공의 연계가 주도한 증시

Analyst 황준호 | 시황/ETF  
02-3779-3186  
jh.hwang@sangsangini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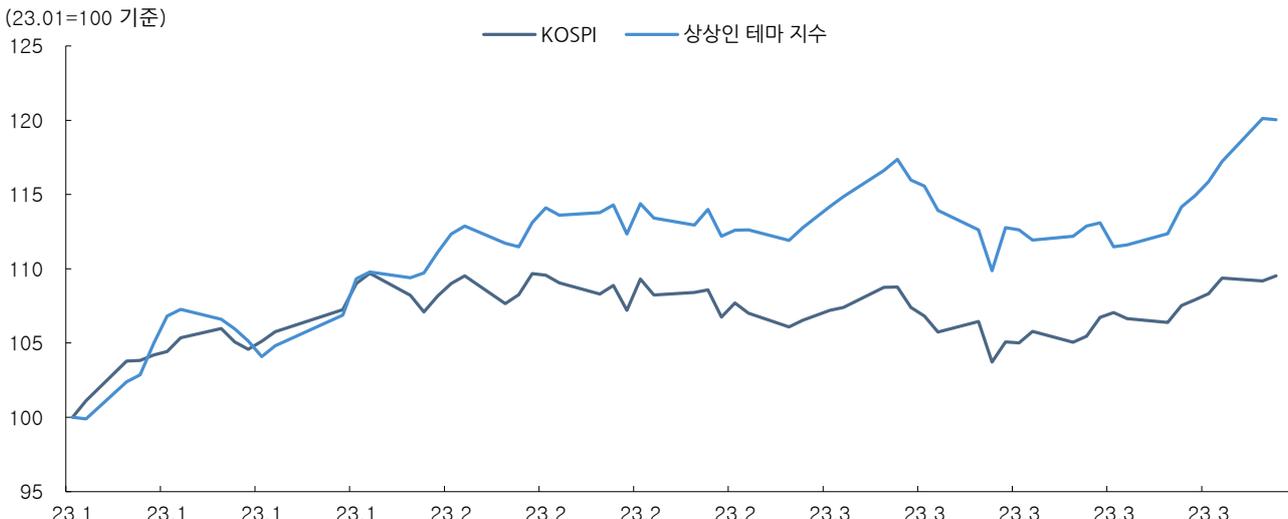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 높아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도 상승세를 시현한 KOSPI

2023년 4월 5일 기준 KOSPI는 2,495.21pt로 주간(기간: 3.29~34.5), YTD 수익률은 각각 2.10%, 11.57%를 기록했다. 또한 월간 수익률은 2.60%를 기록하였다. 금주 KOSPI는 전주 발표된 IRA의 세부 규정 중 핵심광물 비율 요건 및 북미산 배터리 비율 요건들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발표되었다는 인식에 2차전지 섹터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전주대비 상승 마감하였다. 여기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회복되자, 그동안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부진하던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의 종목들에 자금이 유입되며 급등한 점도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지지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특히 미국의 구인건수가 1,000만명을 하회했다는 소식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키며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OPEC+의 대규모 감산 소식에 유가가 급등한 점도 인플레이션 상승세 지속 우려를 부각시키며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며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그림 1. KOSPI 및 상상인 테마 지수 추이(2023년~)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상상인 테마 지수는 6가지 산업(방위 산업+사이버보안+우주 항공+태양광+배터리+원자력 발전)을 동일 비중으로 계산)

## 방산/우주항공 테마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한 상상인 테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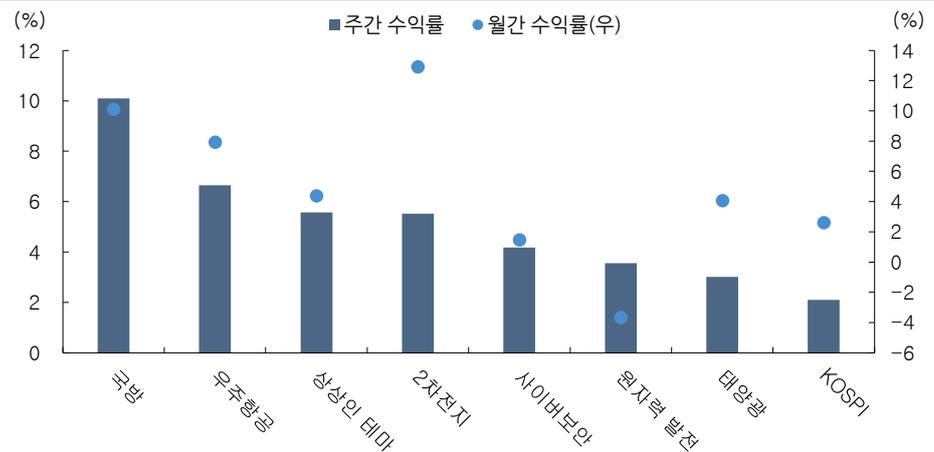
### 월간, YTD 수익률 기준 KOSPI를 상회한 상상인 테마 지수

〈대격돌: 신냉전 시대의 돌파구〉에서 추천했던 6가지 산업(방위산업, 사이버보안, 우주항공, 태양광, 2차전지, 원자력 발전) 대표 ETF들의 월간 수익률은 4월 5일 종가 기준 각각 10.10%, 1.46%, 7.93%, 4.07%, 12.91%, -3.66%를 기록하였다. 이를 동일 비중으로 종합한 상상인 테마 지수의 수익률은 4월 5일 기준 월간, YTD 수익률 기준으로 4.38%, 22.64%를 기록하며 벤치마크 지수인 KOSPI의 수익률을 각각 1.78%p, 11.07%p 상회하였다.

### 주간 수익률 기준, KOSPI를 상회한 상상인 테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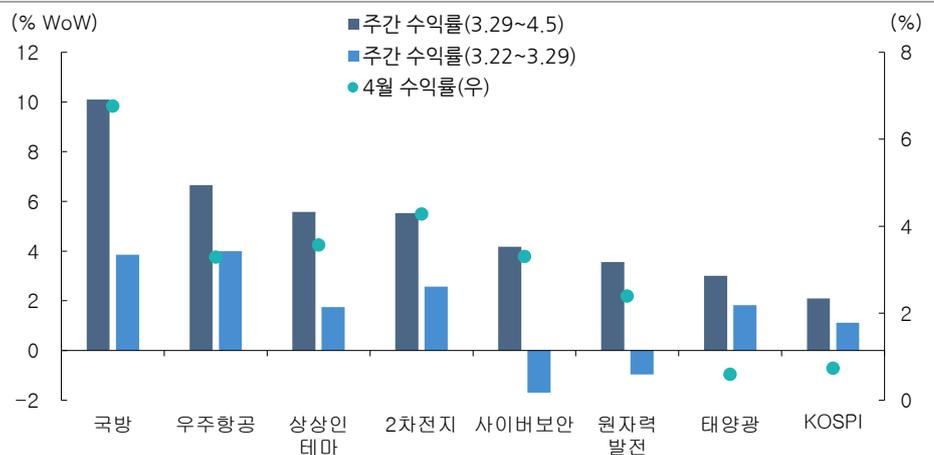
한편 상상인 테마 지수의 주간 수익률(기간: 3.29~4.5)은 5.58%였다. 해당 수익률은 KOSPI의 동 기간의 주간수익률을 3.48%p 상회하였다. 금주 상상인 테마 지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구성 섹터에서 상승세를 시현한 가운데, 특히 국방과 우주항공 섹터에서 상승세를 주도하였다. 우주항공 산업의 경우, 정부가 4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하고 6일(목)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향후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그림 2. KOSPI 및 추천 산업 대표 ETF의 주간, 월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수익률은 3.22~3.29일 기준

그림 3. KOSPI 및 추천 산업 대표 ETF의 세부 기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우주 산업에 날개를 달아준다

### 한국 우주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대한민국 정부는 4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의결했다. 미국의 NASA를 본 따 범부처적인 우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담 기관을 연내까지 설립하려는 이번 법안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시사한다. 우주항공청 특별 법안에 따르면, 우주 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치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문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 상한이 사라진다.

그러나 다음 날 5일(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 형태로는 범부처적인 업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대체하는 법안인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장관급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부지를 두고 대전광역시와 경남 사천으로 갈리고 있는 점도 해당 법안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이 연내 설립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은 초당적인 이슈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우주 산업이 향후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진영과 관계없이 공통적이다. 특히 작년 누리호의 발사 성공 이후 국내 우주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해낸 가운데,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점은 정부 차원에서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줄 유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관련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외에 다양한 우주항공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다. 우주 산업의 상승세는 뒤에 언급할 국방과 연계되어 군용 위성 통신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1. 우주항공청 특별법 vs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비교

우주항공청 특별법	항목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통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정부, 여당 추진	추진 주체	야당 추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	설치 목적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형태로 설립되어 권한과 역할이 모호하기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 설치(청장은 차관급 대우) 청장-차장-본부장 체제로 구성	조직 지위	우주전략본부는 유연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 가능 우주전략본부는 국가우주위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등의 역할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은 민간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 보수 상한선 없이 책정 가능 외국인, 복수국적자 임명 허용	세부 사항	범정부 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조직 설치(장관급 권한) 우주전략본부장 권한으로 우주 분야 관련 민간인도 본부의 구성원으로 임명 가능 우주전략본부장은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 가능→실질적 조정 권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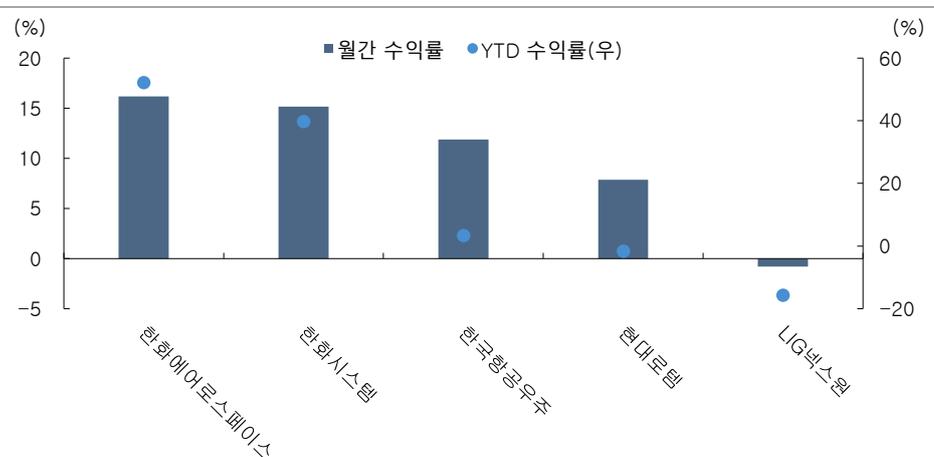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언론보도 종합, 상상인증권

## 우주 항공 산업과 방위 산업은 함께 가는 사이

### 무기 수출 소식에 급등세를 시현한 한국 방위 산업 테마

방산 테마 역시 급등세를 시현하면서 상상인 테마 지수의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방산 테마 관련 종목들은 월간, YTD 기준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월간 기준으로 주요 방위 산업 종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16.18%), 한화시스템(+15.14%), 한국항공우주(11.87%), 현대로템(+7.87%)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KOSPI의 월간 수익률을 상회하였다. LIG넥스원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사우디가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서 LIG넥스원의 유도 로켓 무기인 비궁을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에 향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6%대의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그림 4. 주요 방위산업 테마 구성 종목들의 월간, YTD 수익률



자료: Quantwise,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이번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에 한화디펜스를 합병한 것에 이어서 한화의 방산 부문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담당 방산 사업에 대한 확장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52주 신고가를 갱신하였다. 같은 그룹에 속한 한화시스템 역시 군 위성 통신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방위 산업과 우주 산업이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에 대해 방산 부문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점은 악재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KDB 산업은행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지적하며 조속한 심사를 요구한 소식을 고려하면, 인수건은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인수건이 마무리될 경우, 육·해·공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방산 기업이 탄생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

**방산 테마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  
우주 항공 테마와 연계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실제로 [그림 5,6]을 참조하면 작년 무기 수출 증대에 힘입어, 전반적인 방위 산업 기업들의 2023년 영업이익은 상승 추세에 있으며, 12개월 선행 EPS 역시 상승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방산 테마의 구성 종목들은 우주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을 우주 관련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명시한 것도 방산과 우주 항공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는 테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 산업 시장 규모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 정책을 고려하면, 해당 성장의 수혜는 방산 기업들에게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림 5. 방위 산업 주요 종목들의 2023년 영업이익의 전망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그림 6. 방위 산업 주요 종목들의 12개월 선행 EPS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표 3. 추천 산업별 대표 ETF들의 AUM, 수익률 및 월 평균 거래액

산업	이름	티커	AUM(억 원)	수익률(%)				일평균 거래액 (20D, 십억 원)	트렌드
				1W	1M	3M	YTD		
방위 산업	ARIRANG K방산 Fn	449450	252.5	10.10	10.10	23.40	-	945	
사이버보안	TIGER 글로벌사이버보안INDXX	418670	101.1	4.17	1.46	13.45	18.18	60	
우주항공	ARIRANG 우주항공&UAM iSelect	421320	139.2	6.65	7.93	21.70	17.66	267	
태양광	TIGER Fn신재생에너지	377990	284.1	3.01	4.07	22.23	16.58	481	
이차 전지	TIGER KRX2차전지K-뉴딜	364980	4,622.4	5.52	12.91	38.72	36.53	11,535	
원자력 발전	KBSTAR 글로벌원자력iSelect	442320	29.4	3.56	-3.66	8.05	6.20	15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황준호)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